

2026. 03. 09. 14:19

월요일입니다. 오전 외태를 마치고 방금 수술도 하나 끝났습니다.

대충 오늘 일과는 끝난 것이고 이제 회진 정도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아내도 있다고 하네요.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기어코 이란의 정유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이란 전역에서 불바다가 펼쳐졌고 하늘에서는 유독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란은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터뜨렸

고요. 이 와중에 이란에서는 새 종교지도자이자 최고 지도자가 선출
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시설을 파괴한 것이네요.

아무튼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스타바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란 혁명 수비대와 정보부의 숨은 수장이었죠.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인근 국가에 대한 공격을 사과하며 전쟁 중재 또는 협상을
위한 세력이 있음을 알렸지요. 저는 그때 그런가보다 했지만 사실은
전쟁을 멈출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건파, 사과,
협상. 이 세가지는 외교적 수사였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트럼프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요. 그 결과가 모스타파의 등장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쟁은 길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말한 6주는 확실히 지속될 것이고
유가는 폭등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의 탈취를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시점에 시작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와함께 모스타파의 압송계획도 같이 짜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에대한 출구전략이지요. 만약 이들이 농축우라늄을 확보하면 전쟁은
멈출 것입니다. 모스타파를 압송에 성공해도 전쟁은 멈출 것이고요.

하지만 모스타파가 체포 직전에 자살 폭탄을 사용하거나 농축 우라늄 확보에
실패하면 미국에게는 지옥문이 열릴 것 같네요. 뭐 저야 두자라니까

미국이 이란의 제금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팔 것이 있다면 팔고, 살 것이 있다면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간 고민한대로 투자를 해야지요. 이란에서 벌어진 극민을 향한 총질도 화가 나고 지금 하는 전쟁도 미친 짓이라 생각하지만 아무튼 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에 감정을 실으면 실수합니다. 화는 나지만 저는 제 삶을 이어가야 하니까요. 결국 곳간에서 인심 납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투자를 하면 당분간 낮은 수익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내년 말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2년 정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GOOGL, MSFT, AMZN, META, AMD, INTC, QCOM, IBM, NVDA를 사고 FSLR과 CEG, SMR을 살 생각입니다. 이들중 몇 개는 결국 AI 사업을 접고 이용자가 되겠지만 일부는 큰 돈을 벌어들일 것이니까요. 투자 역시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오늘 아침에 IC-9700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사려고요. 사서 VHF와 UHF, DV, DD 모드를 써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착한 베란다 브라켓도 설치하고 전선도 잘라야지요 다시 할 것이 늘었

